# 大韓帝國 時期 西洋人의 吏讀 硏究*

鄭 在 永

1. 서 론
2. 吏讀에 대한 서양인들의 이해
3. 서양인의 이두 연구
4. 結 論

## 1. 서 론

본 연구는 대한제국 시기의 서양인들이 吏讀를 어떻게 이해하고 연구하였는지를 검토하고, 그 연구 결과가 가진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제국을 전후한 시기는 국어사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국어는 근대어에서 현대어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띨 뿐 아니라, 국어 연구에서도 새로운 틀을 모색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전통의 바탕 위에서 외래적인 요인들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기라는 점에서도 이 시대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서양인들이 吏讀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는 것은 국어사 연구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하는 글들은 다음과 같다.(1)

Aston, W. G.(1895), The Önmun-When Invented, *Transactions of the Asiat-*

---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에서 '대한제국기 근대화 정책과 문화'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0회 학술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토론자로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박성종 교수께 감사한다.

(1) 이 외에도 W. H. Wilkins는 *The Korean Repository, Vol 2*, No. 6(1895)에서 James Scrath Gale의 『辭課指南』을 소개하는 가운데 'The Korean Katakana'라는 제목으로 이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小倉進平의 『增訂朝鮮語學史』(318면)에 따르면 John McIntyre(1879), Notes on the Corean Langage, *China Review*에도 이두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고 하나 현재로서는 그 원문을 확인할 수 없다.

*ic1 Society of Japan, Vol 23.*

Courant, M.(1894), *BIBLIOGRAPHIE CORÉENNE* / 이희재(1994), 『韓國書誌 —修訂飜譯版』, 일조각.[2]

Gale, J. S.(1892), The Inventor of En-moun, *The Korean Repository*, Vol 1, No. 12.

Gale, J. S.(1894), *The Korean Grammatical Forms*(辭課指南, 스과지남).

Gale, J. S.(1897), *Korean-English Dictionary*(韓英字典, 호영조뎐), Yokohama Japan.

Griffis, W. E.(1882), *The Corea, Hermit Nation*, London.

Hulbert, H. B.(1896), The Korean Alphabet, *The Korean Repository*, Vol 3, No. 6 pp. 233~237.

Hulbert, H. B.(1898), The Itu, *The Korean Repository*, Vol 5, No. 2.

Hulbert, H. B.(1901), History of Korea, *The Korean Review Vol* 1 No. 7.

Hulbert, H. B.(1903), The Hunmin Chongeum, *The Korean Review Vol 3*, No. 7.

Johns, G. H.(1905), Sul Ch'ong, Father of Korean Literature, *The Korean Review Vol 5* No. 7.

Scott, J.(1891), *English-Corean Dictionary.*

Scott, J.(1893), 『언문말칙』.

Scott, J.(1895), Stray Notes on Korean History and Literature, *Journal of the Chin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28.*

본고는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이 시기의 서양인들이 吏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들이 이해한 이두의 개념과, 설총과 이두와의 관련 문제, 吏讀字의 차자 원리에 대한 이해 등이 그것이다. 제3장에서는 Courant, M.(1894)과 Hulbert, H. B.(1898)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Courant의 이두 연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음미할

(2) Maurice Courant의 *BIBLIOGRAPHIE CORÉENNE*는 tome premier, tome second, tome troisiéme, supplément 등 4권으로 파리에서 각각 1894년과 1895년, 1896년, 1899년에 간행된 것이다. D. 부셰는 BIBLIOGRAPHIE CORÉENNE의 마지막 책이 1901년에 간행되었다고 한다. 이 중 이두에 대한 것은 주로 1894년에 간행된 *BIBLIOGRAPHIE CORÉENNE* tome premier에 실려 있다. 구결 토의 목록과 구결 토의 뜻풀이는 1895년에 간행된 *BIBLIOGRAPHIE CORÉENNE* tome second에 실려 있다.

점이 많다. 그의 이두 분류 방식은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다.

이 시기의 서양인들에 의한 吏讀 연구는 康允浩(1956~1959)에서 이미 전반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본 연구는 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2. 吏讀에 대한 서양인들의 이해

제2장에서는 대한제국을 전후한 시기에 서양인들이 吏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들이 주로 언급하고 있는 이두의 개념 문제와 설총과 이두와의 관계 그리고 吏讀字의 차자 원리 등이 그것이다.

서양인들은 이두를 연구하면서 일부의 한정된 자료들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주로 참고한 자료는 『增補文獻備考』, 『東國通鑑』, 『芝峰類說』, 『燃藜室記述』, 『朝野會通』, 『國朝編年』, 『三國史記』 등이다. 그 당시에 『三國遺事』 등은 볼 수 없었다. 서양인들이 이두 연구에서 직접 인용하고 있는 자료는 『三國史記』 卷46에 실려 있는 薛聰列傳第六의 관련 기사와 世宗實錄에 실려 있는 訓民正音의 정인지 序(增補文獻備考 卷51), 『東國通鑑』, 『增補文獻備考』 卷83에 나오는 이두와 관련된 기록 등이다. 서양인들은 『儒胥必知』를 포함한 이두 학습서[3] 중 일부도 이두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다.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 이두에 대해 논의한 서양인들의 연구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4] 이 시기에 일본인들의 이두 연구도 보이는 바, 일본인의 이두 연구가 서양인의 연구보다는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도

(3) 이두 학습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658년(효종 9)에 간행된 편자 미상의 목판본인 『吏文』과 『吏文大師』, 『吏文襍例』(編者 年代 미상으로 18세기 이후의 책으로 추정, 한글로 독법을 보인 이두는 약 190항이나 이 중 20항 정도는 중복됨, 吏吐라는 명칭을 쓰고 있음), 『典律通補』 初稿本의 吏文, 『典律通補』 修正本의 吏文, 『古今釋林』의 羅麗吏讀, 『吏讀便覽』(현재 寫本만 전함. 吏讀 330항), 『才物譜』의 里讀, 『五洲衍文長箋散稿』의 語錄辨證說附錄, 『儒胥必知』의 吏頭彙編, 『註解語錄總覽』의 吏文語錄 등이 있다. 이 외에도 吏讀集解, 我東吏讀와 각종 語錄解 뒤에 부록으로 실린 이두 자료집이 있다. 이두 학습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병희(1986)을 참조할 수 있다.

(4) 더 구체적인 것은 강윤호(1956~1959)를 참조할 수 있다.

부족하다. 일본인 중에서 가장 먼저 이두에 대해 연구를 한 岡倉由三郎(1893)도 이 당시의 일반적인 이두 연구 경향처럼 '吏道'와 諺文을 함께 다루고 있다. 그 사람도 초창기의 서양인들처럼 이두의 명칭과 성격 그리고 이두의 설총 제작설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岡倉由三郎의 이두에 대한 연구는 초창기 서양인들의 이두 연구와 대체로 비슷하다. 岡倉由三郎도 이두를, 萬葉書き와 비슷한 것으로 한자의 음운 訓釋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와서 音義에 있어서 다소 유사성이 있는 조선 본래의 단어를 한문 본문 사이에 삽입하여 표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이두를 일본의 送り假字와 비슷한 표기법으로 파악하고 있다. 白鳥庫吉(1897)과 白鳥庫吉(1901)도 이두와 관련이 있는 연구이다.

2.1. 대한제국을 전후한 시기에 서양인들은 제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두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인 연구자들 사이에는 借字表記나 이두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중 일부는 이두를 훈민정음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으며,(5) 이두를 일본의 假名이나 萬葉假名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여 일본의 假名이나 萬葉假名을 한국의 이두 연구에도 적용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그리고 이 시기 서양인의 이두 연구 중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들도 있다. 서양인들이 이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James Scott(1891)은 *English-Corean Dictionary*의 서문에서 이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이두를 일본의 假名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여, 이두를 한문 구문 안에 삽입한 국어의 語尾들과 국어의 音을 표시하기 위하여 漢字의 訓이나 音을 이용하여 표기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두를 Ni-da Syllabary라고 하고 'Ni-da'를 '읽는 것'으로 이해한 것은 그가 이두를 한문의 독법과 관련하여 파악한 것이다. William George Aston(1895)은 『東國通鑑』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이두를 일본의 『古事記』와 『日本書紀』 속에 실려 있는 시가를 표기한 것과 비슷한 것

(5) William Elliot Griffis(1882)와 같이 이두 문자와 훈민정음을 혼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으로 이해한 것이다. 또, 이두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한자를 가지고 국어를 記寫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우리의 이두와 일본의 假名이 한자를 차용하여 표기한 점에서 비슷하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岡倉由三郎(1893)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James Scrath Gale(1892)은 是遣, 是矣, 爲乎所, 是乎 , 爲白乎所 등 다섯 개의 이두 용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 만일 '호다'(hata)나 '일다'(ilta)의 형태와 격조사가 생략된다고 하면 한문의 문맥은 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중국 문자의 배합 즉 이두를 사용하면 한문의 誤讀으로 인한 오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語尾의 사용에 의존하게 된다.

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면 Gale도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처럼 音讀口訣과 이두를 구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두에 대한 표기로 吏讀나 吏道 대신 吏套라는[6] 표기를 사용한다. Gale은 吏套를 'official language code'로 번역하고, 이두를 서로 다른 어미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중국문자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즉, 한자를 빌려 국어의 조사나 어미들을 표기한 것으로 이두를 이해한 것이다. 그가 이두를 'official language code'라고 인식한 것은 앞의 연구자들보다는 이두 특성의 이해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Gale이 이두와 음독구결을 완전히 구분한 것은 아니다. 그도 역시 이두를 '넓은것'으로 규정짓고, 吏套를 한문 독법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시기의 서양인들은 이두와 음독구결을 구분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이두로 이해하고 있다.

Homer B. Hulbert(1898)나 George Heber Johns(1905)도 이두와 음독구결을 구분하지 않고 이두를 넓은 의미에서의 이두로 이해하고 있다. Hulbert(1898)은 이두를 한문 독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

(6) 이두의 명칭이나 표기도 문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두와 관련된 표기로는 吏道(대명률직해), 吏讀(최만리 상소문), 吏吐(吏文 例), 吏頭(유서필지), 里讀(이만영이 편찬한 재물보), 吏刀, 吏套 등이 있다. 이 외에 吏文(전율통보 등), 吏書(제왕운기), 吏札(동국여지승람), 吏語 등도 이두를 뜻하는 단어로 쓰인다.

다. 이두를, 한문 독법에서 한문의 句讀에 적절한 어미들을 붙여 읽는 것으로, 한국의 독자들이 한문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한문 원문에 부가적으로 기입한 자의적인 기호 체계라고[7] 한 것이 그것이다. Johns (1905)도 이두를 interliner symbol(行間에 쓴 기호)로 영역한 바 있다.

Courant(1894)은 이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많은 문헌 자료를 검토한 사람답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두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Courant은 *BIBLIOGRAPHIE COREENNE*의 서문과 『儒胥必知』에 대한 해제 부분에서 이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문헌 자료 전반에 대해 연구한 학자답게 借字表記法에[8] 대해서도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남겨 놓았다. 그는 우리의 차자표기법 중 고유명사 표기법과 음독구결, 이두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다. 이두 토나 구결 토에 대하여 의미 기능의 해석을 시도한 것은 국어사에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먼저 차자표기 중 고유명사 표기법에 대해 언급한 것부터 살펴보자.

> 한국인은 이름과 관직명 등 그들 언어의 음을 전사하는 데 한자를 사용했다. 그 밖에도 이 음성표기법은 중국의 관습과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9]

위에 인용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자를 차용하여 고유명사를 표기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고유명사 표기와 같은 語音轉寫의 표기가 한국의 독

---

(7) The Itu is a system of arbitrary signs to be introduced marginally in a Chinese text to help the Korean reader to apply the proper endings to the Chines picture words

(8) 차자표기 체계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語彙表記 : 固有名詞表記와 一般語彙表記
文章表記 : 鄕札(鄕歌)
吏讀(實用文, 公式文)
口訣 釋讀口訣(飜譯文)
音讀口訣(順讀口訣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말 문장을 표기한 釋義가 있다. 釋義는 鄕札 표기와 비슷한 것이다.

(9) Caurant(1894)에서 논의된 것은 이희재(1994:28)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이하 동일.

창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중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語音轉寫法인 假借와 같은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자표기에서의 어휘 표기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보편적인 것이다.

꾸랑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한문 독법에도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중국, 일본, 한국에서의 발음의 차이는 차치하고 삼국에 있어서 중국어 본문 자체를 읽는 법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 중국인은 각 글자의 음을 나타난 그대로 똑똑히 읽으며 본문에 있지 않은 것은 절대 발음하지 않는다. ㉯ 일본인은 씌여지지 않은 많은 어미를 본문에 첨가하며 중국발음 대신 순수한 일본어로 대치하며 그들 언어 구조에 일치하도록 흔히 단어의 순서를 도치시킨다. ㉰ 한국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글자를 읽되 익숙치 않은 귀로 들으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중국발음과 비슷하게 발음을 한다. 그러나 본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둘, 셋, 넷으로 이합된 음절들로 중간 중간에 사이를 떼고 있다. 일본인들이 어미를 삽입시키는 부분과 일치되는 이 음절들은 格의 표시와 동사적 吐들로서 한국인 독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모국어의 본질과 전혀 다른 본질의 언어의 이해를 돕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이희재(1994:29-30)] ※ 밑줄은 필자가 표시한 것임. 이하 동일. ㉮, ㉯, ㉰는 내용 파악을 위하여 필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Courant의 이 기술은 중국의 한문 독법과 일본의 한문 독법, 한국의 한문 독법 중 음독구결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이다. 만일 지금의 우리들처럼 Courant도 釋讀口訣을[10] 볼 수 있었다면 더 흥미있는 비교가 가능했을 것이다. 일본에는 우리의 음독구결과 같은 한문 독법은 없다. 음독구결은 석독구결을 바탕으로 하여 고려 말부터 많이 쓰이기 시작한 한문 독법으로 지금까지도 경서 등의 한문 독법에 남아 있다.

Courant도 기본적으로는, 이 시기의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두를 넓은 의미에서의 이두로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이두와 음독구결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었다. Courant은 *BIBLIOGRAPHIE CORÉENNE*의 서문에서 이두문에 사용된 吐와 구결의 吐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바, 다음이 그 부분이다.

(10) 석독구결에 대해서는 졸고(1997a)와 구결학회에서 특집으로 간행한 『口訣硏究』 제3집을 참조할 수 있다. 『口訣硏究』 제3집은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表記法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 청원서, 기소장, 衙門의 서간문, 판결문 등에 이두로 된 吐들은 한국어 구문론이 요구하는 자리, 한자 문구 내에 때로는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삽입된다. 이 기호가 경서 강독을 위해 쓰일 때는 책 윗쪽 여백난에 넣는데 이두를 토로 사용한 이런 류의 책은 단 한 종만 보았다. 경서체의 어미와 아문체의 어미는 서로 다른데 어떤 것들은 양쪽에서 다 볼 수 있지만 거의 언제나 다른 글자로 쓰여진다. 경서체의 토가 더 짧고 간단하며 존대형의 사용을 훨씬 덜하고 있다. ㉯ 이 체계는 글자의 表音化에 더 많이 쓰이게 되어 결국 그들의 철자로 그들이 말하는 언어를 쓰게 된 일본의 체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것이다. 설총의 발명은 이 같은 행운을 얻지 못하고 불충분하면서도 불편한 사용으로 사용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본래의 것인지 발전에 의한 것인지 n 187의 이두가 적힌 書經版(書傳大文)은 신라 선비의 "강독법"을 그대로 본뜬 것인지 정보의 부족으로 우리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이희재(1994:31-32)]

※ ㉮와 ㉯는 내용 파악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위에 인용한 글은 Courant이 이두문과 음독구결에 사용된 차자 토의 표기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Courant이 파악한 '경서체의 어미'와 '아문체의 어미'는 각각 음독구결에 사용된 토와 이두에 대응되는 것이다.(11) 그는 먼저 이두문에 쓰인 吏讀字와 口訣字가 다름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자료에서 보면 차자표기로 기록된 음독구결 중에는 토가 한자 정자로 기록된 것과 省劃字인 口訣字로 기입된 것이 공존하고 있는데, 구결자나 이두자가 정자로 쓰인 경우는 상당 부분이 비슷하지만, 우리가 만든 독창적인 口訣字는 한자 정자와 다르기 때문이다.(12) 吏讀字와 차이를 보이는

(11) 꾸랑은 이두를 'Liste des principales particules du style des administrations'(행정부 공문서 양식에 사용된 중요한 吐의 목록)으로, 구결토를 'Liste des principales particules employ es dans le style classique'(고전의 문체에서 사용된 토들의 목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12) 실제로 이 시기에 서양인들이 음독구결에 사용된 吐에 대해서 논의한 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Wilkins와 그리피스, 에스톤 등은 口訣을 한국어의 가나 정도로 인식한 사람이다. Wilkins(1895)는 *The Korean Repository, Vol 2*, No. 6에서 음독구결 吐의 일람표를 제시하고 吐를 讀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차자 구결자의 原字를 제시하고, 그 구결자의 음가를 언문과 로마자로 표기하고 있다. Gale(1894)에서는 차자 구결자로 표기된 구결 토를 제시하여 언문으로 발음을 표시하고 용례도 제시하고 있다. Courant(1894)의 書傳大文(No. 187) 해제에서는 'Liste des principales particules employées dans le style classique'(고전의 문체에서 사용된 토들의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 실제로 105개 정도의 구결 吐를 제시하고 각각의 독음과 의미를 풀이하여

구결자(ㄴ, ㄱ 등)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다. 또, 이두문에 비해 '경서체의 토'가 더 짧고 간단하며, 경어법의 사용에서도 이두와 비교하여 經書 구결문이 비교적 경어법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조선 후기의 음독구결이 석독구결이나 고려말 조선 초기의 음독구결과는 달리 후대로 갈수록 구결문의 토가 단순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꾸랑이 직접 참고한 자료들이 주로 조선 후기의 이두와 구결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문 ㉱ 부분은 Courant이 확인할 수 있었던 후대의 이두와 음독구결이 일본의 한문 독법이나 그와 관련된 문자 체계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바로 이것이 설총이 발명한 그대로인지 아니면 발전해서 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Courant의 이런 태도는 Hulbert(1898)이 이두의 독법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신라어에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2.2. 대한제국 시기의 서양인들은 일반적으로 吏讀를 설총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있다. Hulbert은 『朝野會通』, 『燃藜室記述』, 『國朝編年』 등의 기록에 근거하여 설총이 이두를 제작했다고 주장한다.

> 옛날 신라 시대에 설총이 발명한 이두는 언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두는 그 자체에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보충하기 위하여 언문을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설총이 한국 고유 문자의 발명에 있어서는 최초의 단계를 밟았다고 할 수 있다(13)

이두가 언문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Hulbert(1896)의 주장은 그 이전에 일부의 학자가 이두와 언문 문자를 혼동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서양인들은 자기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설총이 이두를 만든 것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Scott(1891, 1893, 1895)이나 Johns(1905)도 설총이 이두를 만든 것으로 보았다. Scott은 7세기 말엽에 신라의 유명한 승려요 학자인 설총이 이두 음절을 창제했다고 주장하면서,

---

일람표로 제시하고 있다. 꾸랑은 이 외에도 『道里標』(No. 2181)를 해제하면서 이 자료에 보이는 借字 口訣의 정자와 독음 및 의미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13) 이 문제에 대해서는 Hulbert(1896~1959)을 참조할 수 있다. 康允浩(1956)에서도 이미 이 문제가 다루어진 바 있다.

한국어의 어형 변화와 교착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한자를 빌어서 표기한 것이 이두 음절이라고 한 바 있다. 그는 또 이두가 한국어를 표기하는 데 다소 불편한 표기법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까지도 하급 관리들 사이에서는 이두가 쓰이고 있음과 이두의 명칭이 서리와 아전들과 관련이 있음 등을 소개하고 있다.(14)

초기 서양인들은 그 당시 자기들이 활용했던 일부 자료에 근거하여 이두를 설총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Courant의 다음 설명을 통하여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자.

> 설총의 업적은 중국어 본문 강독에 사용되는 한국어 吐를 써놓음으로써 큰 소리의 낭독과 그에 따른 중국어의 이해를 쉽게 만든 것이다. 『儒胥必知』와 『書傳大文』의 해제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接辭의 일람표가 있는데 매우 불완전하지만 이들 일람표는 이두 또는 吏文이 格과 프랑스의 전치사에 해당하는 後置詞, 동사의 법, 시제, 접속, 구두점 및 존칭의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는 동사적 어미를 표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안다. 이 외에도 어느 만큼의 상용 副辭와 행정적 언어의 관용적 용어로도 이두가 쓰일 수 있다. 설총의 표기법은 문구의 문법적 골격은 갖추고 있으나 한자로 채워져야 할 빈 테두리일 뿐이다. 하나의 사상을 설명할 수 없는 이두로 모든 문구를 쓴다는 일은 불가능해 예컨대 라틴어에서 모든 語根을 제외시킨 채 전치사 접속사와 함께 어미변화와 동사변화의 어미만을 유지하는 짝이다. 이로써 내가 인용하고 설총의 발명에 대해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인 세 가지 문헌은 설명되었을 것이다. 언어의 만분의 일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두이지만, 그러나 교육을 받지 못한 한국인에게는 (한문) 강독과 본문의 이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도움을 주는 것이며 확실히 중국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이로써 그의 사후에 주어진 존호[弘儒候], 孔子의 祠堂에의 안치 등 설총에게 주어진 감사의 뜻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희재(1994:31)]

이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꾸랑이 설총을 한문의 독법에서 새로운 표기법 즉 넓은 의미에서의 이두를 창시한 사람으로 파악한 것은 분명하다. 그의 설명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增補文獻備考』와 『三國史記』에 있는 다음 기록에 대한 그의 해석 태도이다.

---

(14) Gale(1892)은 儒賢錄이라는 책을 인용하여 설총의 출신에 대해 다른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는 불확실한 기록에 근거하여 설총을 중국 출신으로 파악하고 있다.

聰 […]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 (三國史記 卷46 薛聰列傳第六)
[(설총이) […] 방언(국어)으로써 九經을 읽어서 후배를 지도하였는데, 지금까지 학자가 본받고 있다]

神文王十二年 薛聰高秩 聰博學 以方言解九經義 訓導後生 (增補文獻備考 卷83)

설총이 방언으로 九經을 읽었다는 '讀'과 방언으로 九經의 뜻을 풀이했다 '解'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 각각의 구절에 나오는 '讀'과 '解'를 번역이나 주석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그 당시 이런 방식으로 문자화한 번역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다. 석독구결이나 초기 이두문 등의 자료에 대해 인식이 없었던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독구결 자료인 舊譯仁王經이 발견된 이후 최근에 와서 고려 시대의 석독구결 자료들이 계속 발굴되면서 차자표기의 형성과 발전 단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설총과 이두 또는 차자표기법에서의 새로운 문장 표기법과 설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과 인식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런 새로운 해석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이 안병희(1984)와 남풍현(1988)이다.

이두(넓은 의미에서 이두)를 설총이 창시하였다는 기록은 최행귀의 均如傳 序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15) 그 이후 많은 문헌에서 이두의 창시를 설총과 관련시키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자료 상으로는 설총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7세기말 이전에도 어휘표기를 비롯하여 초기 단계의 이두문이 쓰였음을 우리는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두와 설총이 아무 관련이 없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다. 석독구결이

(15) 所恨者 我邦之才子名公解吟唐什 彼士之鴻儒碩德莫解鄕謠 矧復唐文如帝網交羅 我邦易讀 鄕札似梵書連布 彼士難傷 […] 薛翰林強變於斯文 煩成鼠尾之所致者歟 [유감인 것은 才子名公은 唐什(漢詩)을 알지만 저쪽(중국)의 鴻儒碩德은 鄕謠(향가)를 알지 못한다. 더구나 唐文(한문)은 帝釋天宮의 垂珠網이 交映羅列함과 같아 우리나라에서 읽기 쉬우나 향찰은 梵書를 잇달아 늘어놓은 것과 같아 저쪽에서 알지 못한다. […] 이 어찌 薛翰林(설총)이 斯文을 억지로 바꾸어 번거롭게도 쥐꼬리를 만든 탓이 아니겠는가.]

나 제 2단계의 이두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로 설총을 주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안병희(1984)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 안병희(1984)는 이두가 두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쳤다고 보았다.(16) 제 1단계의 이두문은 한문의 문장 구조를 국어의 문장 구조로 재배열한 것이다. 한문의 어순을 단순히 국어의 어순에 맞게 바꾸어서 표기하는 방법이다. 제 1단계의 문장 표기에서는 조사와 어미 등 국어의 형태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간혹 한문의 허사인 助字가 쓰이는 경우는 있다. 이에 비해 제 2단계의 이두문은 국어의 조사나 어미 등의 형태부가 문장 표기에 반영되는 단계이다. 우리의 차자표기법은 어휘표기 단계를 거쳐 문장표기로, 문장표기는 다시 단계적으로 발전해 우리말을 보다 더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 2단계의 吏讀文이나 釋讀口訣, 鄕札 등은 초기 단계의 차자표기법 즉, 어휘표기나 제 1단계의 이두문 단계를 거쳐 발전된 독창적인 문장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병희(1984)는 바로 이 제 2단계의 이두문 표기와 관련된 인물이 설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한 것이다.(17)

설총과 이두에 대한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자. 설총과 이두와의 관계에 대한 관련 기록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가: 聰 […]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 (三國史記 卷46 薛聰列傳第六)

以方音 通令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字 (三國遺事 卷四 義解第五)

其時強首薛聰 通曉義理 以方言講九經 (東國通鑑)

神文王十二年 薛聰高秩 聰博學 以方言解九經義 訓導後生 (增補文獻備考 卷83)

나: 本朝三韓時 薛聰所製方言文字 謂之吏道 (大明律直解 跋)

新羅薛聰 吏讀[…] (世宗實錄과 최만리 상소)

(16) 차자표기의 단계적 발전에 대해서는 河野六郎(1967), 남풍현(1975), 안병희(198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7) 남풍현(1988)에서는 석독구결의 기원 문제를 논의하면서 설총보다 앞서는 의상 시대부터 석독구결과 같은 것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昔新羅薛聰 始作吏讀 […] (世宗實錄과 정인지의 訓民正音 序, 增補文獻備考 卷51)

洪武乙亥 鄭道傳等 患律文難解 以薛聰所製吏讀 逐條飜譯 名曰直解大明律 (稗官雜記)

世傳 我東吏讀卽新羅弘儒侯薛聰所著 (古今釋林 羅麗吏讀)

(가)류는 '방언으로 읽었다'나 '방언으로 풀이했다'는 기록이고, (나)류는 '이두를 지었다'는 기록이다. (가)류와 (나)류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초기 자료일수록 설총이 방언으로(우리말로) 九經을 읽거나 풀이했는데 이것이 후대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설총 이전에도 한문을 우리말로 읽으면서 번역하고 심지어는 한자를 빌어 우리의 문장을 표기하기도 하였지만, 이 단계에서는 우리 말의 조사나 어미까지는 다 표기할 수 없었다. 이전의 차자표기법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제 2단계의 이두문이나 향찰, 석독구결과 같은 표기를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한 사람이 설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문을 음독한 것이 아니라, 한문을 우리말 순서로 번역하면서 조사나 어미들을 붙여 읽으면서 해석하고, 나아가서는 이런 방식의 문장 표기를 가능하게 한 인물이 설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3. 서양인들은 吏讀에 사용된 吏讀字의 차자 원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차자의 원리를 訓借와 音借로 설명하고 있다. Scott (1891, 1895)은 吏讀字 표기에 사용된 한자가 단순히 한국어 음의 표기 부호로 사용되어 중국어의 원 뜻과는 상관없이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Hulbert은 이두의 차자 원리를 중국음을 차용한 것과 신라어로 훈독된 중국문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弥(myo), 白(pak)→sal 등이 그것이다. 즉, 전자는 音讀에 해당하고 후자는 訓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바, Hulbert이 후자의 경우를 신라어와 직접 관련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다.

Courant(1894)은 이두자와 구결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吏文에 사용된 기호의 많은 부분은 평상시에 쓰는 한자이며 소수만이 略字 또는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 글자들은 한 글자만으로, 또는 둘이나 셋, 때로는 일곱 글자까지도 무리를 지어 사용된다. 때로 이 글자들은 한국어의 어미로 선택되

기도 하는데 중국어 발음이 이 어미들과 유사하기 때문이며 한국어를 위해 사용되는 음으로서의 단순한 轉寫의 적용을 볼 뿐이다. 때때로 한자의 의미는 대략 그것이 번역되는 이두의 글자를 나타낸다. 그래서 "하다"라는 글자 爲는 하다 동사의 어근인 "하"의 발음에, "이다"라는 是는 "이다"의 어근인 "이"의 발음으로 쓰이는 것이며 단어의 의미가 상실된 것 같은 복합 단어에서도 글자는 보존된다. 때로는 글자로 적용하는데 어떤 유사점도 없이 멋대로 선택된 것 같을 때도 있다. 隱 또는  의 正字 또는 略字로 쓰이는 "은"은 재미있는 적용을 보여주는데 "하"와 합하면 "한", "호"와 합하면 "혼", "나"와 합하면 "난"이 되어 결국 終聲 ㄴ이 격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같은 음은 같은 표기법을 가지고 있으나 예외도 있다. [이희재(1994:31)]

Courant이 이두자와 구결자에 대해 먼저 주목한 것은 이들에 사용된 기호의 많은 것들이 평상시에 한국인이 많이 쓰는 한자라는 것이다. 이 중 소수만이 略字 또는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한자 생획자나 약체자로 만든 우리의 구결자이다. 이두자는 한 글자만으로, 또는 둘이나 셋, 때로는 일곱 글자까지도 무리를 지어 사용된다고 하였다. 꾸랑은 이두자나 구결자들을 한국어의 음을 轉寫하기 위하여 사용한 문자로 파악하고 있다. 또, 차자의 원리에 대해서는 '爲'는 '하'를, '是'는 '이'를 표기하는 문자로 쓰인다고 한다. 차자표기의 원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결여되어 있다. 다만, 예외가 있긴 하지만 차자표기법에서 일반적으로 같은 음은 같은 표기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 3. 서양인의 이두 연구

대한제국 시기에 서양인이 이두 자료를 직접 다루면서 논의한 것으로는 Courant(1894)과 Hulbert(189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Johns(1905)는 이두 목록을 한자의 字數로(음절수로) 구분하여 233개(1음절 2개, 2음절 98개, 3음절 52개, 4음절 46개, 5음절 26개, 6음절 5개, 7음절 4개)가 있다고 소개는 하지만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233語 외에 더 많은 이두가 사용되었으나 그 중 어떤 것은 없어진 것도 있다. 지금은 대개 233개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시대가 경과함에 따라 이두의 수효에도 변동이 있었다

Johns(1905)가 언급한 이 기술은 『儒胥必知』의 吏頭彙編에 제시된 233개의 이두 목록의 숫자와 일치한다. Johns는 그 당시 유행하던 이두 학습서인 『유서필지』를 통하여 이두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이두 연구에서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Courant(1894)과 Hulbert(1898)의 연구이다. 이 두 연구는 이두 연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Courant(1894)의 연구는 이두에 대한 뜻풀이뿐만 아니라 이두의 분류에서도 품사를 고려한 독창적인 분류 방식을 취하고 있다.

3.1. Courant(1894)에서 논의된 이두 목록을 중심으로 그의 이두 연구가 가지는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자. Courant은 『儒胥必知』에 대한 해제에서 이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卷末에는 衙門의 下級官吏들이 공문서류에 사용하였던 助詞(즉 이문 이두)에 관한 일람표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句讀點은 한자로 서사되며 한국어는 그 밑에 적혀져 있다. 고전의 句讀法에 관하여는 書傳大文을 참조하라. 한국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중국문자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저 유명한 학자인 설총(7세기 사람)이라 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한국어의 가장 오랜 形跡을 가지고 있는 句讀法의 일람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어떤 때는 중국문자에서 가장 가까운 訓을 따고 또 다른 경우에는 한국어음과 거의 유사한 음을 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때로는 한국어에 있어서 中國文字 音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訓도 아닌 글자를 볼 수 있다.

이 설명과 함께 'Liste des principales particules du style des administrations'(행정부 공문서 양식에 사용된 중요한 吐의 목록)이라는 표제 아래 별첨 〈자료 1〉과 같이 147개 항목의 이두를 설명하고 있다.

**자료 1 ; 별첨 참조**

〈자료 1〉에서 보는 것처럼, Courant이 설명한 이두 목록 147개에 대한 독음과 설명은 다음 3.2에서 살펴볼 Hulbert의 〈자료 2〉보다는 오류도 훨씬 더 적고 이두에 대한 뜻풀이나 기능 설명도 비교적 정확하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147개의 이두 항목 전체의 뜻풀이를 시도한 것은 국어사에서도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꾸랑의 이두 분류 기준이다. 기존의 이두 학습서에서 분류한 이두 분류 방식에서 탈피하여 언어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두 항목의 분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는 먼저 이두의 토나 이두 어휘를 나름대로 판단한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1) 良中와 (2) 矣, (3) 亦中, (4) 是亦在, (5) 段賓 [段置의 誤], (6) 乙良 등을 조사로 파악하여 맨 앞에 배열하고, 다음으로는 부사를 모아서 제시하고 있다. 꾸랑이 (4)의 '是亦在'을 (3)의 '-亦中'와 같은 기능을 지닌 조사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是亦在'에 대한 Courant의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이것을 조사로 파악한 것은 흥미롭다. (30)의 '爲只爲'부터는 같은 종류의 어미나 유사한 기능을 지닌 토끼리 모아서 이두를 제시하고 있어 이두 토를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113) 矣身, (114) 矣徒, (115) 其矣, (116) 他矣 등의 대명사류를 모아서 제시한 것이다. (117) 節을 '당신의 존칭'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특이한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118)이하의 先達과 書房, 大監, 令監, 殿下, 上監抹樓下 등은 이두 어휘 자료에서 빠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131)의 向前부터 끝까지는 이두문에 사용되는 명사를 제시한 것이다. (125) 敎是, (126) 敎事, (127) 敎是事(daigner, vouloir bien, … 해 주다, -기 바라다, -었으면 좋겠다) 등과 (128) 白, (129) 白是, (130) 白等 등을 명사류 사이에 끼워서 제시한 것도 다소 어색하다. 이와 같이 꾸랑의 이두 제시 방법은 품사 분류나 세부적인 분류 방식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두 토나 이두문에 사용된 어휘를 품사 분류에 의해 분류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다. 또, 이두 항목을 제시할 때 같은 구성체나 기능이 유사한 것 끼리 모아서 제시한 방법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언어학적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이두를 이해하고 분류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Courant이 제시한 이두의 독법이나 설명에도 부분적인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儒胥必知』를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항목에서 이두 일람표를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제시한 이두 147개 중 19개는 『儒胥必知』의 이두휘편에는 없는 것이다. 6자류도 하나만 보이고 7자류 이두가 보이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꾸랑이 제시한 독법도 역시 후대의 이두 학습서들이 보이는 것처럼 중세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근대어의 어형을 반영하고 있다. 이두의 한글 독음에 'ㄷ' 구개음화와 순음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표기법도 근대어적인 표기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1〉에서는 이두 독음 전체를 필자가 다시 한글로 표시하였으므로 꾸랑의 독법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자료 1〉의 (15)로 제시된 '新反'을 '새로이'로 판독하고 "새로이"로 풀이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새로(이)"를 뜻하는 이두는 '新丁'이다. 吏讀에서 '新反'[18]은 『양잠경험촬요』에도 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6세기 후반의 吏讀 자료에서부터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新反'은 <독립신문>에 나타나는 '시로에'와 같은 것으로 중세어의 '카니와'와 현대국어의 '커녕'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이다.

꾸랑이 '是亦在'(이여견)을 조사로 파악한 것은 문제가 있다. 오창명(1995)은 是亦在의 '一亦'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이 '一亦'를 내포문의 명령법어미나 인용법어미로 설명하고 있다. 이 전체를 "…이라는 것"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是亦在'이 14·15세기 이두 자료에는 많이 보이는데, '是亦在'의 구성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在'의 용법이 특이하다.

ㄱ. 行爲臥乎事是ホ後所生以新反文字前所生幷以執持使用爲乎事是亦在 <張戩妻辛氏同生 和會文記 1404년>

ㄴ. 生乙良長孫亦世〃執持使用爲齊(若不顧同腹願)意填廟考察不冬濫執使用人有去ホ同腹立議兒如施行爲乎事是亦在 <柳義孫兄弟 和會文記 1447~1450년>

(18) 후대 이두 자료의 독법에서 '新反'은 주로 '시로이', '시로히', '새로이' 등으로 읽고 있다.

ㄷ. 子孫傳持鎭長使用爲乎矣後次別爲所有去ㅅ此文字內乙用良告官卞正爲乎事是亦在 <權邇男妹 和會文記 1470~1473년 추정>

ㄹ. 宜當敎是則官上爲有臥田出還給明決向敎是事乙良告爲白內臥乎事是亦在伏乞 <張戩所志 1385년>

ㅁ. 執捉准受爲只爲順興府良中行下向敎是事乙良望白內臥乎事是亦在謹言 <張戩妻辛氏所志(1) 1427년>

3.2. Hulbert(1898)은 이두 61개 항목을 아래의 〈자료 2〉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료 2〉에서 제시한 번호는 Hulbert가 제시한 그대로이다. 기존 이두 학습서의 吏讀 字類輯覽이 대체로 字數별로 이두를 분류하고 있음에 비해, Hulbert는 먼저 '是-' 계열의 이두를 먼저 제시하고 '爲-' 계열, '敎-' 계열 순으로 이두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 〈자료 2〉에서 보는 것처럼 61개 항목의 이두를 한자음 그대로 읽는 방법과 이두의 독음 및 이들 각각에 해당하는 언문으로 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가 설정한 'Korean'과 'Unmun'은 같은 것이다. 전자는 로마자로 후자는 한글로 표기한 것만 다르다.

자료 2

| Chinese | Names of Character | Itu | Korean | Unmun |
|---|---|---|---|---|
| (1) 是旀 이며 | si myô | imyô | hamyô | ᄒᆞ며 |
| (2) 是如 이다 | si nyô | ita | hayôtta | ᄒᆞ엿다 |
| (3) 是矣 이되 | | itoé | | ᄒᆞ되 |
| (4) 是遣 이고 | | iko | | ᄒᆞ고 |
| (5) 是喩 인디>인지 | si yu | suchi | muôsinchi | 무어신지 |
| (6) 是乎旀 이오며 | si ho myô | iomyô | hasimyô | ᄒᆞ시며 |
| (7) 是如乎 이다온 | | | itaon | ᄒᆞ엿다니 |
| (8) 是乎謂[是乎喩의 誤] 이온디>이온지 | | ionchi | | ᄒᆞ엿ᄂᆞᆫ지 |
| (9) 是加喩 이던디>이던지 | | itûnchi | | ᄒᆞ엿던지 |
| (10) 是乎乙只 이올기 | | iolkkeui | | ᄒᆞ올ᄭᅦ |
| (11) 是白遣 이숣고>이숩고 | | isalko | | ᄒᆞ시고 |
| (12) 是乎矣 이오더 | | iotoé | | ᄒᆞ시되 |

| Chinese | Names of Character | Itu | Korean | Unmun |
|---|---|---|---|---|
| (13) 是在果 이견과 | | ikyûnkwa | | ᄒᆞᆫ것과 |
| (14) 是白乎矣 이숣오더>이솔오더 | | isalotoé | | ᄒᆞ시되 |
| (15) 是在加中 이견다히 | | ikyûntachung | halt'ôintâ | ᄒᆞᆯ터인ᄃᆡ |
| (16) 是白乎乙只 | | isalolkkeue | | ᄒᆞ옵기에 |
| (17) 是乎乙加喩 이올던지 | | ioltûnchi | | ᄒᆞ엿던지 |
| (18) 是置有亦 이두이신여 | | ituyuyô | keurâtotto | 그ᄅᆡ도또 |
| (19) 是良置 이라두>이아두 | | irato | | 이라도 |
| (20) 是在如良中 이견다아히 | | ikyûntaaé | | 그랫다ᄒᆞ논ᄃᆡ |
| (21) 是如可 이다가 | | itaka | | ᄒᆞ다가 |
| (22) 是白分叱除良 이숣뿐더러 | | isalppundoro | | ᄒᆞ올뿐더러 |
| (23) 是白乎乙分叱不喩 이솔볼뿐안디 | | isalolppunanilchi | | ᄒᆞ올뿐안이라 |
| (24) 是乎乙只以 | | iolkkuii | | ᄒᆞ올씨로 |
| (25) 是如是乎乙遣 이다이올고 | | itaiolko | | ᄒᆞ다ᄒᆞ옵고 |
| (26) 是乎則 이온즉 | | ioncheuk | | ᄒᆞ온즉 |
| (27) 是乎尼 이오니 | | ioni | | ᄒᆞ오니 |
| (28) 是乎乙加尼 이숣더니>이올더니 | | ioltôni | | ᄒᆞ엿숩더니 |
| (29) 是如是乎乙加尼 이다이올더니 | | itaioltôni | | ᄒᆞᆫ다ᄒᆞ옵더니 |
| (30) 是如是乎乙置 이다이숣두>이다이올두 | | itaioltu | | 그리ᄒᆞ려두 |
| (31) 是白乎所 이숣온바 | | isalonpa | | ᄒᆞ신바 |
| (32) 爲只 ᄒᆞ기 | | haki | | ᄒᆞ기에 |
| (33) 爲等如 ᄒᆞ트러 | | hateuro | | 모도다 |
| (34) 爲只爲 ᄒᆞ기삼>ᄒᆞ기암 | | hakiwi | | ᄒᆞ기에 |
| (35) 爲白遣 ᄒᆞ숣고 | wi pâk kyun | hasalko | hasiko | ᄒᆞ시고 |
| (36) 爲白只 ᄒᆞ숣기 | | hasalkeui | | ᄒᆞ시기에 |
| (37) 爲只白爲[爲白只爲의 誤] ᄒᆞ숣기삼 | | hasalchiwi | | ᄒᆞ시기에 |
| (38) 爲白乎矣 ᄒᆞ숣오더 | | hasalotoi | | ᄒᆞ시되 |
| (39) 爲有如乎 ᄒᆞ잇다온 | | hayutaon | | ᄒᆞ신다니 |
| (40) 爲有在果 ᄒᆞ잇견과 | | hayutkyunkwa | | ᄒᆞ신것과 |
| (41) 爲白等 ᄒᆞ숣든 | | hasalteun | | 대개 |
| (42) 爲等良置 ᄒᆞ드라도 | | hateulryachi(?) | | ᄒᆞ드ᄅᆡ두 |
| (43) 爲乎乙只以 | | haolkkiro | | ᄒᆞ옵씨로 |
| (44) 爲臥乎事 ᄒᆞ누온일 | | hanuonsa | | ᄒᆞ온일이라 |
| (45) 爲白乎所 ᄒᆞ숣온바 | | hasalonpa | | ᄒᆞ신바 |

| Chinese | Names of Character | Itu | Korean | Unmun |
|---|---|---|---|---|
| (46) 敎味 이샨맛 | kyo mi | ima | hamâ | ᄒᆞ매 |
| (47) 敎事 이샨일 | kyo sa | isa | hasosa | ᄒᆞ소샤 |
| (48) 敎是事 이신일 | | isisa | | ᄒᆞ시샤 |
| (49) 敎是加乎 이시다온 | | ihasitaon | | ᄒᆞ신다니 |
| (50) 分叱除良 ᄲᅮᆫ더러 | | ppuntôrô | | ᄲᅮᆫ더러 |
| (51) 分叱不喩 ᄲᅮᆫ안디>ᄲᅮᆫ아니지 | | ppun(an)ilchi | | ᄲᅮᆫ안이라 |
| (52) 分叱不是乎乙喩 ᄲᅮᆫ아니올지 | | ppunaniolchi | | 그리ᄒᆞᆫᄲᅮᆫ안이라 |
| (53) 上下 ᄎᆞ하 | sang ha | chcaha | chusitun kot | 주시던것 |
| (54) 良中 아긔>아히 | | ae | | 에 |
| (55) 段置 ᄯᅳᆫ두 | | ttantu | | 도 |
| (56) 向前 아젼 | | achun | | 요전 |
| (57) 矣徒 의닉 | | euinâ | | 저희들이 |
| (58) 侈 音 다딤>다짐 | | *tachim* | | 다짐 |
| (59) 竝只 ᄃᆞᄆᆞᆨ>ᄃᆞᄆᆞ기 | | tamokki | | 모도다 |
| (60) 亦爲有如乎 ᄒᆞ여 ᄒᆞ잇다온 | | hayudaon | | ᄒᆞ라ᄒᆞ온즉 |
| (61) 乙用良 을쓰아 eul yong ryang | | eulsôa | haonba | ᄒᆞ온바 |

*이두 항목에 한글로 독음을 단 것은 필자한 것임.

Hulbert이 〈자료 2〉에서처럼 이두를 설명한 것도 이 당시로서는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물론 『五洲衍文長箋散稿』의 語錄辨證說附錄처럼 부분적으로 이두의 뜻 풀이를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종래의 이두 학습서들은 일반적으로 이두를 吏讀字의 數字별로 즉, 1자류, 2자류, 3자류, 4자류, 5자류 6자류, 7자류 등으로 분류하고 이두의 독음을 한글로 전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Hulbert(1898)의 연구가 가지는 의의도 있지만, 그의 이두 독법과 의미 파악에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 자신이 제시하여 설명한 이두 중 반 이상을 신라시대의 어법을 직접적으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어의 계통 문제까지 연결한 것이다. Hulbert은 한국어의 계통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어의 南方起源說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자료에서 특이한 것은 기존의 이두 학습서에서는 볼 수 없는 이두도 있다는 것이다. Hulbert의 이두 독음도 후대 이두 학습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ㄷ' 구개음화와 순음화가 반영된 독법을 취하고 있는 것과 이두의 어형도, 앞서 간행된 이두 학습서에 보이는 중세어의 고형이 아니라, 근대어의 어형을 반영하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두 학습서류에 제시된 이두의 한글 독법에는 물론 보수적인 독법도 보이지만, 이두 학습서가 간행된 시기에 따라 독법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구개음화나 순음화가 나타나지 않은 자료가 보다 더 이른 시기의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오래된 자료일수록 제시된 어형도 중세어에 가깝다. 차자 표기에서도 앞선 시기의 '㲃'과는 달리 후대 자료에서 '𠁼'으로 표기되는 것도 자료들이 간행되거나 기록된 시기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자료 2〉에서도 '㲃' 대신에 모두 '𠁼'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두의 독음에서 이두자 중 일부를 한자음 그대로 읽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일부의 이두 학습서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자료 2〉에 제시된 특이한 것 중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10) 是乎乙只(iolkkeui, ᄒᆞ올쎄)와 (24) 是乎乙只以(iolkkuii, ᄒᆞ올씨로), (43) 爲乎乙只以(haolkkiro, ᄒᆞ옵숩로) 등과 (17) 是乎乙加喩(ioltûnchi, ᄒᆞ엿던지), (28) 是乎乙加尼(ioltôni, ᄒᆞ엿숩더니), (29) 是如是乎乙加尼(itaioltôni, ᄒᆞ다ᄒᆞ옵더니) 등과 (30) 是如是乎乙置(itaioltu, 그리ᄒᆞ려두) 등에 보이는 '-乎乙-'은 겸양법의 '-숣-'에서 변한 후대형이다. 이 자료 (16) 是白乎乙只(이숣올디>이ᄉᆞᆯ올지)에 통합되어 있는 '-乎乙-'과는 그 분포와 통합 방법이 다른 것이다. (16)에 통합되어 있는 '-乎乙-'은 선어말어미 '-오-'와 관형사형어미 '-ㄹ'이 통합한 것이다. 이 자료에서는 '白'으로 표기된 것은 'ᄉᆞᆯ'로 표기하고, '-숣-'이 '-올-'로 변한 것을 '-乎乙-'로 표기하는 것은 다른 이두 학습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다. '-白-'(-숣-)의 '-올-'로의 변화를 표기에 반영한 자료로는 『古今釋林』의 羅麗吏讀를 들 수 있다. '爲白去乙'(ᄒᆞ올거늘), '爲白遣'(ᄒᆞ올고), '爲白只爲'(ᄒᆞ올기위) 등에서 '白'이 '-올-'로 표기된 것을 찾을 수 있다. 안병희(1986)에서는 白을 '올'로 읽는 것을 '숣>ᅀᆞᆲ>올'로의 변화로 보았다. 즉, '숣'에서 변한 'ᅀᆞᆲ'의 독음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올'로 읽혀진 것으로 본 것이다. 졸고(1998)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吏讀 吐 '爲白齊'(ᄒᆞ숣져)가 『字恤典則』

의 언해문에서는 'ᄒᆞ올져'로 나타나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한 증거로 들 수 있다.

〈자료 2〉에 보이는 국어의 경어법과 관련된 현상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서양인 연구자들이 국어의 경어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것처럼 Hulbert도 국어의 경어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다.

| | | |
|---|---|---|
| (14) 是白乎矣 이숣오ᄃᆡ>이숩오ᄃᆡ | isaloto | ᄒᆞ시되 |
| (31) 是白乎所 이숣온바 | isalonpa | ᄒᆞ신바 |
| (34) 爲只爲 ᄒᆞ기삼>ᄒᆞ기암 | hakiwi | ᄒᆞ기에 |
| (37) 爲只白爲[爲白只爲의 誤] ᄒᆞ숣기삼 | hasalchiwi | ᄒᆞ시기에 |
| (41) 爲白等 ᄒᆞ숣든 | hasalteun | 대개 |

앞에 제시된 예에서 보는 것처럼 그도 '-白-'(-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 4. 結　　論

대한제국 직전부터 대한제국 시기 동안 서양인들은 우리의 언문과 이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일본인들의 이두 연구보다 서양인의 이두 연구가 양적으로도 많다. 서양인의 이두 연구 중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연구도 많다. Courant(1894)과 Hulbert(1898)가 대표적이다. 이 두 연구는 이두 연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Courant(1894)은 이두에 대한 뜻풀이뿐만 아니라, 이두의 분류에서도 품사를 고려한 독창적인 분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한제국을 전후한 시기에 서양인들은 吏讀를 넓은 의미에서의 이두로 이해하고 있었다. 꾸랑 등은 이두와 음독구결의 차이도 주목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음독구결도 넓은 의미에서의 이두로 인식하고 있었다. 초기 서양인들은 제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두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인 연구자들 사이에는 借字表記나 이두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서양인들은 일반적으로 吏讀를 설총이 제작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차자의 원리는 訓借와 音借로 파악하고 있었다. Courant이

이두자와 구결자가 평상시에 한국인이 많이 쓰는 한자에서 빌려 온 것이라고 파악한 점과, 예외가 있긴 하지만 차자표기법에서 일반적으로 같은 음은 같은 표기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 시기의 이두 연구에서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을 수 있는 Courant과 Hulbert의 연구는 그 자체로도 자료적인 가치가 있다. 이 두 연구는 이두의 뜻이나 기능을 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Courant의 연구는 이두에 대한 뜻풀이뿐만 아니라, 이두의 분류에서도 품사를 고려한 독창적인 분류 방식으로 이두 토나 이두문에 사용된 어휘를 분류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다. 또, 이두 항목을 제시할 때 같은 구성체나 기능이 유사한 것 끼리 모아서 제시하고 있는바, 꾸랑의 이두 분류 방식은 언어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분류 방법이다.

(필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參考文獻

康允浩(1956~1959), 「吏讀學史 硏究序說(一 ~ 五)-近代 西洋人의 吏讀 硏究-」, 『국어국문학』 15, 17, 18, 19, 20.

康允浩(1967), 「十九世紀初에 있어서의 西洋人宣敎師의 韓國語硏究」, 『동서문화』 1.

고정의(1992), 「大明律直解의 吏讀 硏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金允經(1938), 『朝鮮文字及語學史』, 朝鮮圖書出版館.

南豊鉉(1975), 「漢子借用表記法의 發達」, 『국문학논집』7 · 8, 단국대학교.

南豊鉉(1980), 「口訣과 吐」, 『國語學』 9.

南豊鉉(1981), 「漢文 · 漢字의 受用과 借字表記法의 發達」, 『韓國 古代文化와 隣接文化와의 關係』(보고논총 1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南豊鉉(1988), 「釋讀口訣의 起源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南豊鉉(1990), 「吏讀 · 口訣」, 『國語硏究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南豊鉉(1991), 「吏讀資料」, 『韓國學基礎資料選集 : 中世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南豊鉉(1997),「借字表記法과 그 資料」,『國語史硏究』, 태학사.

盧孤樹(1981),『韓國基督敎書誌硏究』, 부산:예술문화사.

박성종(1996),「朝鮮初期 吏讀 資料와 그 國語學的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창명(1995),「朝鮮前期 吏讀의 國語史的 硏究－古文書 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李光麟(1969),『韓國開化史硏究』, 일조각.

安秉禧(1977),『養蠶經驗撮要와 牛疫方의 吏讀 硏究』,『東洋學』 7집.

安秉禧(1984),「韓國語 借字表記法의 形成과 特徵」,『제3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安秉禧(1987),『吏文과 吏文大師』, 탑출판사.

安秉禧(1992),『國語史 硏究』, 문학과지성사.

이승재(1992),『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이승재(1994),「吏讀의 辭典學的 特性」,『애산학보』 16.

이응호(1975),『개화기의 한글운동사』, 성청사.

장지영·장세경(1976),『이두사전』, 정음사.

鄭在永(1996),「19世紀末부터 20世紀初의 한국어문」,『韓國文化』 18.

鄭在永(1997a),「고려시대 釋讀口訣」,『문헌과해석』 통권1호.

鄭在永(1997b),「借字表記 연구의 흐름과 방향」,『새국어생활』 1997·제7권 제4호·겨울, 국립국어연구원.

鄭在永(1998),「정조의 기아 구휼법, 字恤典則」,『문헌과해석』 통권3호.

홍기문(1957),『리두연구』, 과학원출판사.

洪淳赫(1946),「儒胥必知小考」,『한글』 96.

洪淳赫(1947),「儒胥必知小考(續)」,『한글』 99.

岡倉由三郎(1893),「吏道·諺文考」,『東洋學藝雜誌』 143호, 144호.

白鳥庫吉(1897),「吏道·諺文(についての問答)」,『史學雜誌』 8-1.

白鳥庫吉(1901),「再び朝鮮の古語に就いて」,『言語學雜誌』 2-1.

朝鮮總督府(1911),「吐に用ュル漢字一覽表」,『朝鮮總督府 月報』 12월호.

金澤庄三郎(1918),「吏讀の硏究」,『朝鮮彙報』4월호.

小倉進平(1940), 『增訂 朝鮮語學史』, 東京: 刀江書院.

河野六郎(1967),「古事記に於ける 漢字使用」,『古事記大成 : 言語・文字編』.

*별첨 : 자료 1

| 이두 | 독음 | 의미 |
|---|---|---|
| (1) 良中 아히 | ahăi | sur, à |
| (2) 矣 의 | eui | de |
| (3) 亦中 여히 | yehăi | parmi |
| (4) 是亦在 이여견 | iyeken | id. |
| (5) 段眞[段置의 誤] 뚠두 | tantou | quant à |
| (6) 乙良 으란 | eulan | id. |
| (7) 導良 드다아 | teutăiye | par suite de, confo |
| (8) 乙用良 을쓰아 | eulsyo-ă | id. |
| (9) 仍于 지즈루 | tjijeuro | à cause de |
| (10) 除良 더러 | tere | sans faire (quelque |
| (11) 爲巴只 ᄒᆞ도록 | hătourok | jusqu' à |
| (12) 適音 마춤 | matjam | juste au moment |
| (13) 始叱 비릇 | piras | au commencement |
| (14) 初如 초여 | tchyohye | id. |
| (15) 新反 ᄉᆡ로에 | săiro-i | nouvellement |
| (16) 追于 조초 | tjos-tcho, tchyou-ou | de nouveau |
| (17) 更良 가ᄉᆡ아 | kasăi-a, tasi | id. |
| (18) 況旀 ᄒᆞ믈며 | hămoulmye | à plus forte raison |
| (19) 尤于 더욱 | te-ouk | id. |

| | | |
|---|---|---|
| (21) 專亦 젼혀 | tjyenye | spécialement |
| (22) 這這 ᄀᆞᆺᄀᆞᆺ | kaskas | complètement |
| (23) 流伊 흘러 | heulni | excessivement |
| | | |
| (24) 最只 안직 | autjăki, katjang | id. |
| (25) 必于 비록 | parok, pantăsi | certainement |
| (26) 幷只 ᄃᆞᄆᆞᆨ | tamouki, aolna | ensemble |
| (27) 岐如가로혀, 가로러 | kareuhye | à part |
| (28) 惟只 오직 | aki, otjik | seulement |
| (29) 樣以 양ᄋᆞ로 | yang-euro | comme si |
| (30) 爲只爲 ᄒᆞ기삼 | hăki-am, kăki-oui | impératif respectue |
| (31) 白齊 ᄉᆞᆯ져 | săltjyei | id. |
| (32) 爲白齊 ᄒᆞᄉᆞᆯ져 | hăsăltjyei | id. |
| (33) 是白有齊이ᄉᆞᆯ잇져 | isălpistjyei, isălyoutjyei | id. |
| (34) 爲齊 ᄒᆞ져 | hătjyei | impératif |
| (35) 耳亦 ᄯᅡᆫ너 | ttanye | fin d'une phrase( · |
| (36) 是良尒 이아금 | i-akeum | id. |
| (37) 有乎事이시온일 | isi-anil | faire(auxiliaire à l<br>d'une phrase) |
| (38) 臥乎事 누온일 | nouhonil | faire(auxiliaire fina |

| | | |
|---|---|---|
| (40) 爲白乎事ᄒᆞᅀᆞᆫ온일 | hăsălhonil | faire(respectueux) |
| (41) 爲白臥乎事 ᄒᆞᅀᆞᆫ누온일 | hăsălnouhonil | id. id. |
| (42) 爲白有如乎事 ᄒᆞᅀᆞᆫ잇다온일 | hăsălpistahonil | id. id. (au pass ) |
| (43) 是遣 이고 | iko | fin d'un membre de |
| (44) 爲白遣 ᄒᆞᅀᆞᆫ고 | hăsălko | id. (respectueux) |
| (45) 爲是遣 ᄒᆞ이고 | hăsiko | id. |
| (46) 爲旀 ᄒᆞ며 | hămye | id. |
| (47) 爲乎旀 ᄒᆞ오며 | hăhomye | id. |
| (48) 爲白乎旀ᄒᆞᅀᆞᆫ오며 | hăsălhomye | id. (respectueux) |
| (49) 是白乎旀이ᅀᆞᆫ오며 | isălhomye | id. id. |
| (50) 有 잇ㅡ, 이시 | pis, you | marque du passé |
| (51) 是在果 이견과 | ikyenkoa | id. |
| (52) 爲在 ᄒᆞ견 | hăkyen | id. |
| (53) 爲白在果ᄒᆞᅀᆞᆫ견과 | hăsălkyenkoa | id. (respectueux) |
| (54) 爲白有在果 ᄒᆞᅀᆞᆫ잇견과 | hăsălpiskyenkoa | id. id. |
| (55) 敎是白在果 이시ᅀᆞᆫ견과 | isisălkyenkoa | id. id. |

| | | |
|---|---|---|
| (56) 是沙 이사 | isă | ayant fait |
| (57) 乙沙 을사 | eulsă | id. |
| (58) 是良結 이라져 | iratjye | ayant |
| (59) 爲良結 ᄒᆞ아져 | hăeulatjye | id. |
| (60) 爲白良結ᄒᆞᄉᆞᆷ아져 | hăsălatjye | id. (respectueux) |
| (61) 是如可 이다가 | itaka | en faisant |
| (62) 爲如可 ᄒᆞ다가 | hătaka | id. |
| (63) 爲白如可ᄒᆞᄉᆞᆷ다가 | hăsăltaka | id. (respectueux) |
| (64) 爲白有如可 ᄒᆞᄉᆞᆷ잇다가 | hăsălpistaka | id. id. |
| (65) 是良沙 이라사 | i-asă | après avoir fait |
| (66) 是白良沙이ᄉᆞᆷ아사 | is las | id. (respectueux) |
| (67) 爲白良沙ᄒᆞᄉᆞᆷ아사 | hăsălasă | id. id. |
| (68) 是去乙 이거늘 | ikeneul | s'il en est ainsi (suivi de pourquoi?) |
| (69) 是白去乙이ᄉᆞᆷ거늘 | isălkeneul | id. (respectueux) |
| (70) 爲去乙 ᄒᆞ거늘 | hăkeneul | id. |
| (71) 爲有去乙ᄒᆞ잇거늘 | hăpiskeneul | id. |
| (72) 爲白去乙ᄒᆞᄉᆞᆷ거늘 | hăsălkeneul | id. (respectueux) |
| (73) 爲白有去乙 ᄒᆞᄉᆞᆷ잇거늘 | hăsălpiskeneul | id. id. |

| | | |
|---|---|---|
| (74) 敎是白去乙 이시숣거늘 | isisălkeneul | id. id. |
| (75) 爲去等 ᄒᆞ거든 | hăketeun | si(conditionnel) |
| (76) 爲白去等ᄒᆞ숣거든 | hăsălketeun id. | (respectueux) |
| (77) 是喩 인디 | intji | si(dubitatif) |
| (78) 是乎喩 이온디 | ihontji | id. |
| (79) 喩 ᄒᆞᆫ디 | hăntji | id. |
| (80) 爲白乎喩ᄒᆞ숣온다 | hăsălhontji | id. |
| (81) 爲白良喩ᄒᆞ숣안디 | hăsălantjiid. | id. |
| (82) 不喩 안디>아닌지 | anintji | si(dubitatif et néga |
| (83) 及良 미처 | mistchye | quand |
| (84) 是乎等以이온ᄃᆞ로 | ihonteulro | parce que |
| (85) 是白乎等以 이숣온ᄃᆞ로 | isălhonteulro | id. (respectueux) |
| (86) 爲有 [置의 誤]有等以 ᄒᆞ잇두이신ᄃᆞ로 | hăpistou-isinteulro | parce qu'il a dit |
| (87) 是良置 이라두 | iratou | quoique |
| (88) 是白良置이숣아두 | isălatou | id. (respectueux) |
| (89) 爲良置 ᄒᆞ아두 | hăratou | id. |
| (90) 是乃 이나 | ina | id. |

| | | |
|---|---|---|
| (91) 是白去乃이숣거나 | isălkena | id. (respectueux) |
| (92) 是白乎乃이숣오나 | isălhona | quoique (respectueux |
| (93) 爲去乃 ᄒᆞ거나 | hăkena | id. |
| (94) 是乎矣 이오뎌 | ihoteu | quand même, bien q |
| (95) 爲乎矣 ᄒᆞ뎌 | hăhoteu | id. |
| (96) 是如 이다 | ita | |
| (97) 是如乎 이다온 | itahon | |
| (98) 是白去乎이숣다온 | isălkohon | il a dit, comme il di |
| (99) 爲乎 혼 | hăhon | as it says, as it doe |
| (100) 爲去乎 ᄒᆞ거온 | hăhon | —다고 하니; 해위나 |
| (101) 是白昆 이숣곤 | isălkoun | |
| (102) 爲昆 ᄒᆞ곤 | hăkoun | |
| (103) 是臥乎所이누온바 | inouhonpa | c'est ce qu'il fait |
| (104) 爲所 ᄒᆞᆫ바 | hănpa | |
| (105) 爲乎所 혼바 | hăhonpa | |
| (106) 是實[置의 誤] 이두(이라두) | itou | il dit |
| (107) 爲有 [置의 誤] ᄒᆞ잇두 | hăpistou | id. |
| (108) 是白實[置의 誤] 有亦 이숣두이신여 | isăltoupisye, isinye | voilà ce qu'il dit (respectueux) |

| | | | |
|---|---|---|---|
| (109) 是乎味 이온맛 | ihonma | ┐ | il dit qu'il ferait (pr |
| (110) 爲乎味 혼맛 | hăhonma | ├ | |
| (111) 爲白臥乎味 ᄒᆞ숣누온맛 | hăsălnouhonma | ┘ | |
| (112) 叱不喩 ᄲᅮᆫ안디 ᄲᅮᆫ안디>ᄲᅮᆫ아닌지 | pounanintji | | on ne sait si c'est t<br>n'y a pas davantage |
| (113) 矣身 의몸 | euisin | | de moi |
| (114) 矣徒 의너 | euito | | de nous |
| (115) 其矣 더의 | keu-eui | | d'eux |
| (116) 他矣 남의 | tye-eui | | id. |
| (117) 節 디위 | tjioui, tjyel | | votre(respectueux) |
| (118) 書房 | syepang | | vous, monsieur (tern<br>générale) |
| (119) 先達 | syental | | vous, monsieur (en<br>s'adressant à un bac |
| (120) 進賜 ᄂᆞᄋᆞ리 | naari | | vous, monsieur (à u<br>fonctionnaire supérie<br>grade) |
| (121) 令監 | ryengkam | ┐ | vous, monsieur (en s<br>à un haut dignitaire), |
| (122) 大監 | taikam | ┘ | |
| (123) 殿下 | tyenha | ┐ | (en s'adressant au F |
| (124) 上監抹樓下 | syangkam-mano-ra | ┘ | V.M. |

(Les domestiques emploient tous ces même termes, en les faisant
[The domestics use all these terms, making the word 主(in Korea
[하인들은 이 모든 용어를 사용하되, '님'이라는 단어를 그 뒤에 붙인다]

| | | |
|---|---|---|
| (125) 敎是 이시 | isi | daigner, vouloir bie |
| (126) 敎事 이산일 | isă | id. |
| (127) 敎是事 이신일 | isiăs | id. |
| (128) 白 솰 | săl | marque le respect |
| (129) 白是 솰이 | sălsi | id. |
| (130) 白等 솰든 | sălteun | id. |
| (131) 向前 아전 | anil | marque la fin d'un<br>communication |
| (132) 上下 챠 | tchaha | paiement fait par l<br>gouvernement |
| (133) 捧上 밧자 | pat-tcha | paiement fait au g<br>nement |
| (134) 卜定 다졍 | poktyeng | impôts spéciaux |
| (135) 尺文 주문 | tchyek-moun | reçu (du paiement<br>impôts) |
| (136) 佗音 다짐 | tatjim | engagement pris av<br>clause pénale |
| (137) 白活 발괄 | palkoal | plainte |
| (138) 題音 뎨김 | tjyeikim | résponse du magist<br>écrite sur la plainte |
| (139) 流音 흘림 | heulim | minute |

| | | |
|---|---|---|
| (140) 帖字 톄ᄌᆞ | htyeitjă | sorte de sceau |
| (141) 件記 ᄇᆞᆯ긔 | kenkeui | liste |
| (142) 退伊 믈리 | moulye | *remettre*; donner ı |
| (143) 擬只 시기, 비기 | siki | commander, ordon |
| (144) 役只 겨기, 겻기 | kyeki | s'occuper de |
| (145) 下手 하슈 | hasyou | commencer |
| (146) 卜役 ᄃᆡ역 | pokyek | service, emploi |
| (147) 舍音 마름 | maleum | gardien de rizières |

* 자료에 제시된 불어 해석은 박잔호 선생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이두 독음
rant이 제시한 순서대로 필자가 붙인 것이다.